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2024년 예배를 위해 반주로 섬기실 분들입니다.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 2024년 연령별사랑방 교사 명단입니다.(교역자/교사/생활지도)  
꾸러기사랑방 : 장영미 / / 차태옥  
어린이사랑방 : 석지인 / 윤혜교 / 이승호  
푸른꿈사랑방 : 이어진 / 김화인 / 이재신  
늘푸른사랑방 : 권재만 / / 석용범  
젊은이사랑방 : 최기찬 / / 김중필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을 17일(수)부터 26일(금)까지 홍콩과 태국으로 다녀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 꾸러기학교 동문회가 20일(토) 오전 10시에 학교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정연갑 · 이윤순 집사 가정 ( 새해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 호

2024년 1월 14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당신의 2%는 무엇입니까?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마6:33)

2024년 사랑방공동체 표어가 정해지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린 후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가 표어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란 진정 무엇일까.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깊이 고민해보게 됩니다. 또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의 맨 앞자리에 이 생활 표어를 두고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을 아셨는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표어와 함께 제시해주셨는데 바로 ‘2% 채우기 운동’이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 후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들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2%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었고, 만나는 지체들에게도 “2% 채우기로 했으니까~~”라며 서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생활공동체 영성수련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본인이 채워야하는 2%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성서일기 쓰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나눔부터 아침기도회에 나오는 것, 수요기도회와 예배에 더 마음을 두고 참여하는 것, 공동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고백까지.. 공동식구들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본인의 영성과 더불어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려는 노력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2%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물질에서 생각할 수 있고, 관계에서 2% 더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같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표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개념

들이 있었는데 모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분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가족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된 명확한 근거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피 값으로 받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엡2:13-19)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한답니다. (엡2:22)

하나님의 나라는 땅 덩어리도 아니요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자신에게 2%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바뀐 신분을 망각하고 여전히 옛 사람으로 묶여 살아가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정의, 평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2% 더 채워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진리가 아닐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브리서3:1)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2% 더 채워져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곳,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 한주간 말씀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86, 288 / 322

기도 :

성경 : 잠언 10장

제목 : 기쁘게 할 것인가, 근심거리가 될 것인가?

#### 1. 내용: (What)

1~3, 6, 7, 9, 11, 16, 17, 20, 24, 25, 27~32 악인과 의인  
4, 5, 15, 26 게으른 사람  
8, 10, 12~14, 18, 19, 21~23 지혜가 없는 사람

#### 2. 의미: (Why)

- 1) 훈계와 책망을 잘 듣자. [17]
- 2) 말을 아끼고 순종하자. [8, 10, 14, 19, 21, 23]
- 3) 사랑으로 연합하자. [12, 18]

#### 3. 적용: (How)

- 1) 피드백을 잘 하자.
- 2)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
- 3)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

## 나에게 '낭독'이란?

저는 성격상 경험에 보지 않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낭독'의 재미에 푹 빠져있습니다. 그 시작은 좋아하는 그림책을 스스로 잘 읽고 남들에게 잘 읽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는데, 낭독이 이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저만의 즐거운 '놀이'가 될 줄은, 평생 이 놀이를 즐기며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전에는 글을 소리 내어 읽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또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묵독해야만 그 내용이 이해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예배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줄씩 함께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낭독을 알게 된 뒤로는 소리를 내어 읽고 함께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은 낭독에 있어 걸음마 수준이라 참 많이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깨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때 그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나고, 내 목소리를 듣는 이들이 좀 더 편하게 듣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글 하나하나에 공감하고 잘 경청해야만 그 의미가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단어와 단어 사이랑 문장과 문장 사이에 포즈(pause)를 충분히 취해 줘야 더 낭독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낭독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사이에는 참 많은 것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얼마 전부터 성경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께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하나 공감하고 경청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끝났을 때 포즈(pause)하며 주님 말씀을 되새겨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따뜻한사랑방 윤경옥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84 : 1-4 인도자  
2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5 : 1 인도자  
45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태복음 5 : 1-12 설교자  
524 따뜻한사랑방  
“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30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전선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성경을 읽으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만나게 됩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 외에는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산상수훈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 복의 내용이 같은 것으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겹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석용범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

### 복된 삶의 첫 발, 꾸러기학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5~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시안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을지를 아내와 함께 적지 않은 시간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신앙교육이 우선이라는 것과 우리부터 바른 믿음생활을 함으로서 아이가 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라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았고 점점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개인적인 믿음생활은 오히려 후퇴하였고 시안이에 대한 신앙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교육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시안이는 어느덧 6살이 되었고,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유치원을 알아보던 중에 사랑방공동체 꾸러기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으로 시안이를 입학시키게 되었고 결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꾸러기학교 생활을 통해 시안이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만화 주제가를 부르고 다니던 시안이가 하나님을 찬양하

게 되었고 어린이 성경책을 스스로 읽으며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이기는 하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식습관이 개선되었으며 동생을 잘 돌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3)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속에서 때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 시안이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첫발을 꾸러기학교를 통해 내딛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내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는 하지만 꾸러기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안이의 마음 판에 하나님을 새기게 된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든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안이를 보살펴 주신 전향옥선생님, 정승희선생님, 이어람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시안이는 꾸러기학교를 떠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행복했던 학교에서의 추억들은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글 / 꾸러기학교 정시안 아빠, 정재혁

## 내 동생

나는 1남4녀 중 넷째, 딸로는 셋째이다. 오빠와 막내인 여동생 사이에서 치이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다. 그래서인지 산으로 들로 많이 놀러 다녔고 집에서는 책 속에 빠져 있었다.

반면 동생은 막내이기도 하고 작고 귀여운데다가 영특하고 애교도 많아서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나는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데 동생은 누구에게나 노래도 잘 불러주는 재롱둥이였다. 그런 동생이 나를 알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이 잘 놀았고 사이가 좋았다. 첫째와 둘째 언니들은 허구헌 날 피터지게 싸우는 날이 많았다. 그런 언니들에 비해 거의 싸우지 않는 우리를 엄마는 신기해 하셨다.

몸이 약해 대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악을 하고 싶다는 동생에게 선뜻 레슨비를 대주겠다고, 열심히 해보자고 했었다.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해주고 싶었다. 정말 바쁘고 쉽지 않은 대학생활이었지만 동생은 중학교 교사가 되어 35년여 동안 촌지를 받지 않으면서 명철함과 지혜로움으로 교직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어반스케치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졌다. 정말 잘 그린다. 미술을 전공했어도 될 정도로...

동생은 자기 형부가 병이 났을 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입원할 때마다 거액을 내놓았고 조카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었다. 때마다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내게 도움을 주었다. 옷을 사러 갔다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으면 값이 비쌌을텐데도 보내 준다. 나의 옷 절반 정도는 동생이 사 준 것이다. 저도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내가 고마움을 표할 때마다 레슨비 이야기를 하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의 자기가 있는 것이라면서. 나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느낌이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형제간의 우애가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나와 동급의 닳은 꼴이 있기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즐겁게 꾸려가 보련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436장, 438장

성경 : 에베소서 2:11-22

말씀 :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격화되어 전면전 돌입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평화가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정세를 틈타 평화를 깨는 일들이 없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 공동체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공동체를 이어가는 많은 공동체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기를.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2024년 표어대로 우리 지체들이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더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 2) 생활 공동체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2024년 첫 주일을 보내고 생활공동체식구들은 영성 수련회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서일기와 '사랑방 공동생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삶 2%'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더욱 애쓰겠다는 지체들의 다짐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성서일기와 아침기도회, 수요기도회 등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더욱 힘을 쏟기로 마음을 먹으며 수련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4년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